

‘정성드린 자본재, 희망을 담아 세계로’ 실천

제9회 한국포장기계대상 경영관리부문 수상



김은갑

(주)솔팩 대표이사

“한국포장기계 대상 경영관리부문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포장기계 협회 회장님과 임원들, 회원사 사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은갑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청장상인 한국포장기계대상을 수상 하게 된 것은 지난 12년도 열심을 다하였으나, 더욱 더 수준 높은 기계를 만들어서 실리 있는 수출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해 하자 없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985년도 (주)솔팩의 전신인 세진자동기에 입사하면서 포장 기계업계와 인연을 맺게된 그는 생산현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현장에서 기계를 만지고, 기계를 사랑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제안을 하고 디자인변경에 주력 했다. 그동안 좀 더 완벽한 기계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판매처를 넓히기 위하여 가장 유명한 세계포장기계 전시회 참관도 빼놓지 않은 그는 “꿈을 가지면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1996년 (주)솔팩을 창업했다.

창업 이후, 김 사장은 ‘정성 드린 자본재, 희망 담아 세계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천하며 직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임직원들에게 하나의 혜택이라도 더 돌려주고자 복리후생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각오 아래 1등보다는 특등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 최상의 상품으로서 대접을 받고자 기술개발 투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1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가져오기도 했다.

“폭넓은 ABC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고, 매년 매출대비 7~10%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팔십만불의 수출목표와 함께 매출 50억원을 목표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솔팩은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해외에는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약 20여 개국에 각종 파우치 포장기계를 수출하였고 현재 국내외 약 700여대를 판매해 왔다. 수출을 통해 국내 가공업체의 가공기술을 한 단계 올려놓았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서 수입하던 사셋 포장기계와 파우치포장기계를 개발 수출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오는 등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였다.

김은갑 사장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주력하는 분야는 해외 전시 참관을 빼놓을 수 없다.

솔팩은 2000년부터 해외전시를 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2008년 7월에 FOOD-PACK MALAYSIA 참가, 12월 PROPACK INDONESIA에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장벽을 넘기 위하여 2006년 7월 CE-MARK를 인증받았고, 지식소유권을 보호받고자 2008년 5월 7일 실링부의 오염방지를 위한 식품포장장치와 직선형 노즐을 패용한 다열 예비포장장치로 특허 출원했다. 이외에도 2004년 4월 벤처기업, 2006년 4월 클린사업장, 2006년 10월 INNO-BIZ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최근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6년 10월 수출 PACKAGE TOUR업체/2007년 4월 수출기업화 사업체 2007년 6월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1세기 기업은 이익이 창출되거나, 극대화되었을 때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실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은갑 사장. 그는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인 돕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

급하는 등 사회복지차원에서도 나눔의 기회를 많이 갖고자 폭넓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정기 조찬 모임에도 시간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갑 사장은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창립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못한데 아쉬움을 갖고 있다. 그는 “새로운 회장단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현실적으로 이뤄 포장기계업계의 위상을 높여주기 바란다”며 “정부와 폭넓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회원사의 권익을 폭넓게 확보 및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원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포장기계를 제작하는 회사, 포장기계를 수입/수출하는 회사,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전문회사, 포장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 등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창구와 문호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사무국 신설을 제안하며, 인원을 보강하여 회원사마다의 애로점/불편한 점을 상담해 주고, 지도해 주고, 각종정책지원 사업을 도와주는 활기찬 협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김은갑 사장은 “포장기계 업계의 대표 기업이 되자”는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출시되고 있는 포장기계의 기능과 디자인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뛰어난 품질력은 타사와 차별화를 이루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가 만든 포장기계 하나하나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 멋진 자본재를 만들고, 만들어진 우수 자본재에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지구촌 모든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고 싶다”고 전하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